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히 11:1-6)

유년부 & 초등부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 - 9월 둘째 주

오늘 이야기

우리 가족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하단의 '오늘 이야기' 카드를 잘라 뒤집어 두고 한 개를 골라주세요!
카드에 담긴 질문에 답하며 이야기 나누어요.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읽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돌아가면서(윤독) 말씀을 소리내어 3번 읽어요. *각자 성경책을 보고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새 한글성경)

- 1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 2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 3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 5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요

우리 이야기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 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봐요!
하단의 '우리 이야기' 카드를 잘라 뒤집어 두고 랜덤으로 골라 질문에 답하며 이야기 나누어요.

9월 생활미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가족과 붙들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정해 함께 읽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짐하면 미션 완료!

** 미션 수행 후, 부서 담당교역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인증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우리
이야기

주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동행)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은 아벨,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나요?

내가 받았던 '상'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보람있던 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